

❶ 이기택 회장 국시원 이사장 연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백상호·이하 국시원) 3대 이사장으로 이기택 협회장이 연임됐다.

지난 5월 8일 앰배서더호텔에서 개최된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백상호 국시원 원장, 박기준 국시원 사무총장, 변철식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최환영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화중 대한간호협회장, 한석운 대한약사회장, 문현경 대한영양사회장, 김정학 대한안경사협회장, 이청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안승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등 12명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협회장이 새이사장으로 추대됐다.

이 협회장은 작년 3월 당시 초대이사장이었던 유성희 전 의협회장의 사업에 따라 2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국시의 질적 향상과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예비시험제도 완성을 위해 힘을 쏟아 왔다.

또한 이 협회장은 이날 이사회를 주관함으로써 새로운 임기의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에 첫발을 내딛었으며 앞으로 그 간의 업무에 계속성을 부여, 국시 개선과 각 직종 단체별 특수성을 살피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❷ 치협, 2001년도 첫 정기이사회 개최



중앙일보는 직영 주간지 뉴스위크한국판을 통해 앞으로 치협의 정책사업을 후원하고 중앙일보 본보에서는 치협 정책사업을 적극 알리게 된다.

치협은 지난 5월 8일 열린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중앙일보·뉴스위크한국판과 연계한 치협정책 홍보계획사업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 두 언론매체를 치과계의 홍보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뉴스위크한국판과 중앙일보 본보는 수돗물불소화, 장애인구강보건, 북한의료지원, 서로 존중하기 캠페인, 2002 APDC 서울총회 등 치협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치협의 요청에 따라 기사화할 계획이며 특히 뉴스위크한국판에서는 치과계 유명인사를 연 2~3회 표지인물로 게재하고 매달 2건의 치과계 기사를 실을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제 50회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을 검토하고 회칙개정 인준의 건, 윤리위원회 개최 추인의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수진내역 통보에 따른 허위·부당청구 회원 징계의 건 등에 대해 토의했다.

❸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 개최

지난 5월 4일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임형순)가 열렸다.

이날 시행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치과의제도와 관련, 소수정에 인원의 범위를 비롯해 수련기관의 인정기준 마련, 전문치의 과목 시행기준과 10개 과목 동시 실시의 어려움, 시행시기 등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다.

임형순 위원장은 “지난 대의원총회 결의내용 중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소수정에 인원 및 전문치의 과목 시행, 시행시기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개진해 복지부와의 면허사를 좇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제봉 법제이사는 “최근 전문치과의제도와 관련한 1차 진료기관 표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기타사항으로 수련기관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수련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자는 건이 개진됐다.

❹ 치협, 임시이사회 개최

치협은 지난 5월 15일 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성순·송파구을·새천년민주당) 의원과 (김홍신·전국구·한나라당) 의원이 공동명의로 빌의,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에 치과를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중 개정 법률안의 입법추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기기로 했다.

또한 치협은 ▲의료인 집단휴업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 부당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처벌을 추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에는 면허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형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3년의 벌금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관련의료단체와 공조해 적극 저지해 나기기로 결의했다.